

제27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1981년 5월 16일 오전 10시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 안 건 : 1) 1980년도 사업실적 보고
 2) 1980년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3)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4) 기타

참석회원 : 참석 209 위임 66 계 275명
 (회의내용)

1. 개최식

가. 국민의례

나. 개회사(회장)

다. 환영사(박상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라. 감사패 수여

박병림(경북자동차도서관후원회장)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2. 제13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

연구상 1명 공적상 5명 봉사상 5명

—10분간 휴회—

3. 성원보고

단체회원수 542명중 참석 209명, 위임 66명 계 275명의 참석으로 정관 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사무국에서 보고하다.

4. 의장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하다.

5. 심의안건 처리

가. 안건 1) 1980년도 사업실적 보고

사무국장은 유인된 1980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보고하다.

—의장은 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는지를 묻다.

—이에 대하여 질의사항 없고 원안 통과

동의안을 고 기식(홍익대도서관) 회원이 제출하다.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동의안이 성립되다.

—의장은 개의안이 있는지 묻다.

—개의안 제출없고 동의안을 전원 찬성하여 통과시키다.

나. 안건 2) 1980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사무국장은 유인된 1980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관 항목별로 지출 내용을 상세히 보고 설명하다.

이어서 김 남석 감사는 1981년도 회계감사결과를 자체예산과 출판회계로 나누어 금피조사, 세입, 세출, 지적 및 시정 조치사항으로 나누어 상세히 보고하다

—의장은 질의 사항있는지 묻다.

—이중삼(경기도립도서관) 회원은 세입실적 미진 원인과 1981년도에 모두 결손처리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다.

—이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본협회의 세입 예산을 정부예산과 같이 재원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분기별 등으로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판사업을 한다던지 회비를 징수한다던지 하는 불확실한 세입내역임으로 결산시 항상 미수액이 있게 마련이며 사무국에서는 미수액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수액중 그 성격에 따라서 결손처리되는 것도 있으나 채권으로 확보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있다고 하다.

—박영덕(한광여고) 회원은 직원 급여 문

제에 대하여 소정의 급여를 소정의 날짜에 지불치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직원급여만은 제때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고라도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세우도록 하라고 촉구하다.

—이에 대하여 김남석 감사는 회비 수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운영비조차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수익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으로서 출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출판사업의 시작은 좋았는데 당초 기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직원급여만큼은 우선하여 지급되도록 감사 결과에서 시정조치 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하다.

—의장은 다른 질의사항이 없느냐고 묻다.

—이에 대하여 한상완(국제경제연구원)회원은 원안 접수기로 동의안을 제출하다.

—이에 재청 삼청이 들어와 동의안이 성립되었고, 개의안 제출이 없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다.

다. 안건 3)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사무국장은 유인된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및 관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질의사항이나 건설적인 사업안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다.

—이에 대하여 김재준(성실여대) 회원은 권익옹호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고 묻다.

—사무국장은 물론 권익옹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나 최대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이며 만약 부족하다면 예비비라던지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박영낙(경북대) 회원은 총회 운영에 대하여 모처럼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만큼 회원들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다.

—고원상(광주교고) 회원은 기부금에 대하여 80년도에는 5백만원 책정에 2백만원 수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임원기부의 정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회비수입으로서는 근본적인 재원대책에 모자라는 형편이고 어쩔 수 없이 기부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임원들의 각별한 협조와 후원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며 사무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다.

—이종삼(경기도립) 회원은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 통과 시키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다.

—이에 대하여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동의안이 성립되었고 개의안 제출이 없이 이를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다.

라. 기타 안건

—윤영태(카톨릭의대) 회원은 회비 결손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며 징수문제에 대하여도 사무국에서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들도 회비만큼은 제때에 완납하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이용남(마을문고본부) 회원은 앞서도 여러 회원들이 지적했듯이 회원으로서

구성되는 사단법인체에서 회비가 기본 재원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회비로서 운영비조차 충당치 못하고 있음은 이를 시급히 시정하여 회비로서 운영비 정도는 최소한 충당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하고 자체에 회비의 급별을 재조정하고 내년도 회비를 인상하도록 하되 회비급별조정 및 인상율을 이사회에 위임토록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다.

- 이에 대하여 재정 삼청이 있어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의장은 선포하다.
- 의장은 개의안이 있는지를 묻다.
- 시경모(공주교육대) 회원은, 국고보조금도 받게 되고 수익 사업으로서 출판 사업도 시작하였으니 이에 기때해 보도록 하고 회비 인상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자는 개의안을 제출하다.

- 의장은 제청이 없느냐고 묻다.
- 제청 삼청이 없어 개의안이 성립되지 못하다.
- 서경모(공주교육대) 회원은 회비를 무작정 인상치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회비로서 운영비 충당이 가능케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는 찬동함으로 개의안을 철회하겠다고 하다.
- 의장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나 안건 제시가 없음을 확인하고 회회를 선언하다.
-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협조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하다.

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 1981년 5월 16일 오후 1시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대당강

안 건 : 임원의 해임 및 임원의 보선에 관한 일

참석자 : 23명

불참자 : 17명

(회의내용)

1. 의장 직무 대행자 지명

송효순 회장은 의원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이봉순 부회장은 개인의 사정으로 불참케 됨에 따라 부회장은 그 직무 대행자로서 조재후 평의원을 지명하다. 이를 사무국에서 보고하고 조재후 의원은 직무대행을 수락하다.

2. 성원보고

평의원 40명중 참석 23명으로 정관제 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임으로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사무국에서 보고하다.

3. 의장은 성원보고를 받고 회회를 선언하다. 아울러 임원의 해임을 먼저 처리하고 임원의 보선을 다음에 처리함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전원 의견 없이 동의하다.

4. 사무국장은 임원의 해임내용과 보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가. 의원 사임서 제출 임원 명단
 회 장 송 효 순
 이 사 송 학 준

- 〃 손 회 석
- 〃 김 운 배
- 〃 정 채 은

나. 임원 보선 내용

- 회 장 1명
- 이 사 4명

5. 의장은 일부 임원의 의원 사임서 제출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해임함에 전원 동의하다.

6. 의장은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회장 및 이사 4명에 대한 보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대하여 이병목 의원은 임원 보선을 위한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이들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다.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동의안이 성립되다.

—의장은 개의안이 있는지를 구한 바 개의안 제출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동의안에 찬성하여 통과시키다.

—의장은 동의안 통과를 선포하고, 전형위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동의안 제출자에게 요청하다.

—이에 대하여 이 병목의원은 공공도서관계, 학교도서관계, 대학도서관계, 특수도서관계와 도서관학계에서 각 1명씩 계 5명의 전형위원을 선출하되 각 관중에서 추천하고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얻

도록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다.

—이에 대하여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동의안이 성립되고 의장은 개의안의 제출이 있는지를 묻다.

—의장은 개의안 제출자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찬성하여 통과시키다.

—의장은 동의안 통과를 선포하고 각관중에서 전형위원 후보자를 추천키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다.

—의장은 10분후에 속회를 선포하고 각관중의 전형위원 후보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다.

공공도서관계 정 병완(국립중앙도서관)

학교도서관계 이 정희(서울북공고)

특수도서관계 한 상완(국제경제연구원 자료정보실)

대학도서관계 류 동열(서울대도서관)

도서관학계 이 병목(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의장은 추천자 명단을 발표한 후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찬성하여 통과시키다.

—의장은 임원의 보선을 위한 전형위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힘

도서관의 평생교육

전통찾는 문화국민